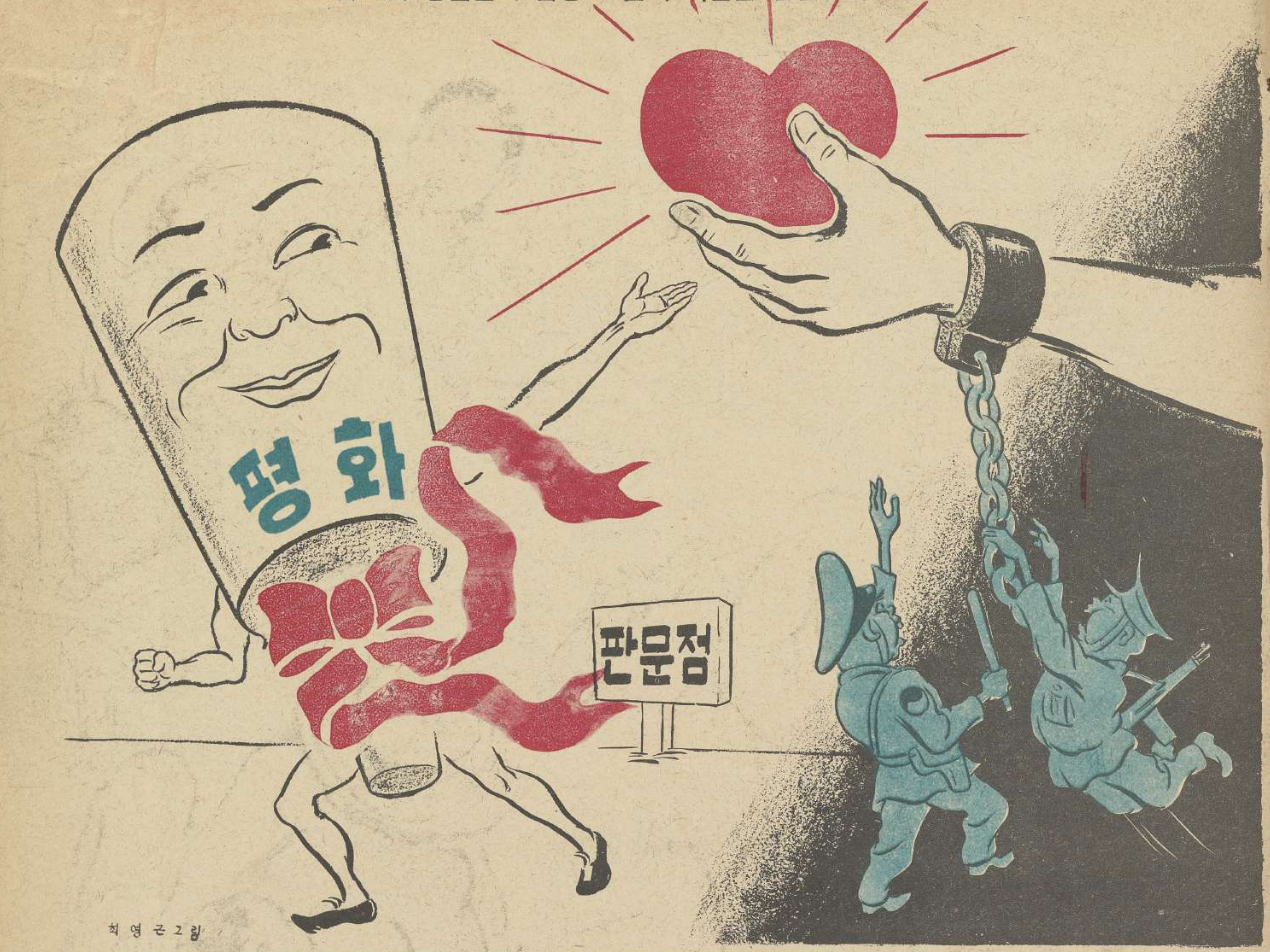
—저자는 아는척 하려는 바람에 국가 기밀을 루설하고 있군…

리 영춘 그림

활살

7 월호 1957년 (80)

남조선 청년들의 심장과 함께 빠톤은 판문점을 떠났다



세번째 사표

김 광 현

괴뢰 정부의 소위 《농림부》의 청사와 온갖 비품과 서류는 금년 초에 몽땅 불타버렸다.

당시의 《농림부 장관》인 정 운갑은 그 책임을 진답시고 사표를 제출했었다. 이런 일로 리 승만이가 자기를 해고시키지는 않으리란 것을 타산했고, 그런 기회에 제법 책임을 느낄줄 아는 사람으로 가장하려는 배'장이였다.

그후 금년 봄에 수백만의 절량 농가가 생겨서 그 책임을 《농림부 장관》에게 추궁하는 여론이 분분한 때에도 정 운갑은 또 한번 사표 연극을 꾸몄다. 정 운갑이 예상했던대로 리 승만은 그가 그처럼 철저하게 농민들을 착취 수탈한 《공로》를 칭찬하여 어깨를 툭툭 두둘겨 주었었다.

그러므로 리 승만이가 소위 《대통령》 노릇을 하는한 정 운갑의 벼슬 자리는 확고 부동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았었다.

그런데 그후 그 《농림부 장관》 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 났었다.

× ×

농림부 차관—(백 기호를 데리고 들어 와서) 장관 각하에게 인사를 들이시요.

백 기호—저는 백 기홉니다.

차관—(장관에게) 오늘 새로 임명된 경리 파장입니다.

장관—음, 우리 농림부의 경리 파장이란 말이요?

차관—네!

장관—그런데 왜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소, 마치 죄인처럼……

차관—네 사실은……저……미스터 백 기호 군은 바로 어끄제 마포 형무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습니다.

장관—아니 그럼 참말루 죄인이란 말이요? 그런데두 나하구 상의도 없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하여튼 밖에 나가 좀 기다리게하구 우리끼리 좀 이야길 합시다.

백 기호—나보구 나가라구요!?흥 제길할 (물를 거리며 나간다)

장관—아니 원 저런 버릇 없는 고약한 놈 봤나! 음 저 놈은 대체 뭘해 쳐 먹던 놈이요?

차관—네 지난 가을에 수입 비료를 4백 가마니 사기 횡령해 먹은 장본인의 하나입니다.

장관—원 저런 고약한 놈 봤나! 당장 목아질 잘으시요

차관—언성을 좀 낮추시죠

장관—여러 말할 것 없이 그 놈을 쫓아 버리시요.

차관—그건 곤난합니다.

장관—뭣이 곤난하오? 음……만약 곤난한 일이라면 왜 나한테 미리 상의 하질 않었소.

차관—상의할 여부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장관—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차관—사실은 그 백 군의 누이가……

장관—무엇 때문에 그놈의 가정 사정을 동정하는거요. 음 그러다간 당신까지 의심 받는다는 걸 모르오 같이 사기 횡령했다구……

차관—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참말 해임시키겠습니다.

장관—그렇게 하시오.

차관—그대신 미국 대사관에서 말이 날 때엔 장관 각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장관—아니 그건 또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거요?

차관—사실은 그 백 기호의 누이가 땐서랍니다. 그런데 요사이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 출입하더니 바루 농무관하구……

장관—아니! 그 미국 사람하구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 음 어서 저…그…미스터 백을 불러 오십시요.

차관—(문을 열어 보고 나서) 없습니다.

장관—없다니!?어서 찾아 보시오

차관—아마 아주 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장관—뭐요? 야단 났군 야단났어! 어서 뛰여 나가 보시요.

차관—네! 네

× ×

《농림부 차관》은 허둥지둥 달려 나갔으나 백 기호는 벌써 저 갈 곳으로 가버렸다.

그리하여 정 운갑은 자기가 예견한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대사관에 있는 농무관에게 불리워 가서 단단한 야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백 기호의 취직 문제가 아니고 금년 농사 형편이 보잘 것 없으니 군량미를 어떻게 충당하겠냐는 책임 추궁이 였다. 사실 그것은 망막한 일이며 언뜻 대답 못할 노릇이였다.

정 운갑은 불가불 세번째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번만은 리 승만도 별 도리 없어 그 사표를 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 운갑은 떨어져 나가고 정 재설이가 《농림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되였다. 그리고 새 《장관》 정 재설은 소위 취임식을 마치자 마자 자기의 첫 사업으로서 백 기호를 경리 과장이 아니라 축산국 부 국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홀치기 주간》

신 흥 순

리 승만이는 뻔질낳게 《징병 기피자 단속 주간》이니 《병역 기피자 적발 주간》이니 《징집 기피자 색출 주간》이니 이름만 다른 벼라별 《홀치기》 주간을 만들어 놓고 《닥치는대로 깡그리 잡아드려라!》 호통을 빼며 녹두 방정을 떨어 봤지만 5만 여명의 징병 기피자는 도모지 찾아 낼 도리가 없다.

허다 허다 못해 요즘은 각 경찰서 단위로 기피자 적발 책임 수'자를 재 활당해 놓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홀치기 주간》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경찰들은 더욱 혈안이 돼 가지고 《가택 수색》이요 《종업원 조사》요 《행인 검색》이요 하면서 실은 병역 해당자도 아닌 청년 학생들을 기피자로 막 끌어다가 책임 수 자에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려수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실이 있다.

경남 삼천포에 사는 정 대식은 려수에 있는 자기 삼촌댁에 다니러 갔다가 징병 기피자로 경찰에 끌리어 갔다. —증명서를 보신대도 아시잖습니까? 그는 안경 쓴 형사를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저는 올해 열일곱살입니다.

—열일곱? 임마! 거짓말말아! 이따위 가짜 증명서를 가지구, 망할 자식!

—아닙니다. . 제 키를 보십쇼, 넉자두 못되는 걸요.

—키빼기 가지군 대중헐 수 없어!

—그럼 우리 고향 경찰서에다 조회를 해 보시면 아실게 아녜요?

—그래 본적지에다 조회를 해 볼테니까 나가 기다려!

—네

정 대식은 함정에서나 빠져 나온 듯이 바쁜 걸음으로 삼촌댁으로 갔다. 얼마 안 가서 《거기 섯!》 소리와 함께 순경 하나이 나타났다.

—증명서 좀 보자!

—제 증명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임마! 경찰서에서 그런 증명서나 보관하는 텐줄 아냐? 어서 가자! 너 기피자지!

—아닙니다, 전 열일곱살이예요, 경찰서에 가셔서 당장 물어 보셔두 아실걸요

—흥! 이자식이? 너 가봐서 만일 거짓부리였다간 죽을 줄 알어!

정 대식은 앞서서 힝하니 경찰서로 갔다. 그러나 어쩐 영문일가? 글세 증명서를 빼앗든 안경 쓴 형사는 간곳 없고 그런 형사는 원래 이 경찰서에 없다는 것이다.

—이자식 뉘 앞이라고 거짓말이야? 하고 무작정 어둑컴컴한 감방에 몰아 넣는 것이다.

얼마후에 안경 쓴 형사는 순경을 찾아 왔다.

-자 보게 내 솜씨가 어떤가?

형사는 호적등본이며 기타 위'건 서류를 순경 앞에 내놓았다.

—음 됐어! 이렇게 손이 척척 맞어야……허허허

그들은 이렇게 간교한 수단으로 정 대식을 잡아다가 려수시에 살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즉시 병사구 사령부로 넘기였다.

그는 거기서 사정을 말했다.

—저는 려수에 사는게 아니라 삼천포에 삽니다. 그런데 삼촌댁에 왔다가……

—아무데 살건 상관 없어!

—그리구 저는 올해 열일곱살입니다.

—씨끄러! 호적 등본이 있는데 무슨 잔소리야!

병사구 사령부에서는 또다시 제 2 훈련소 수용 련대로 넘겼다. 여기에서도 정 대식은 사정해 보았다

—저는 정말 열일곱살입니다.

—이자식이? 군대에 복무허기가 싫단 말야?

—저는 삼촌댁에 왔다가 경찰서에서 위조 서류를…

—임마! 기압을 받아봐야 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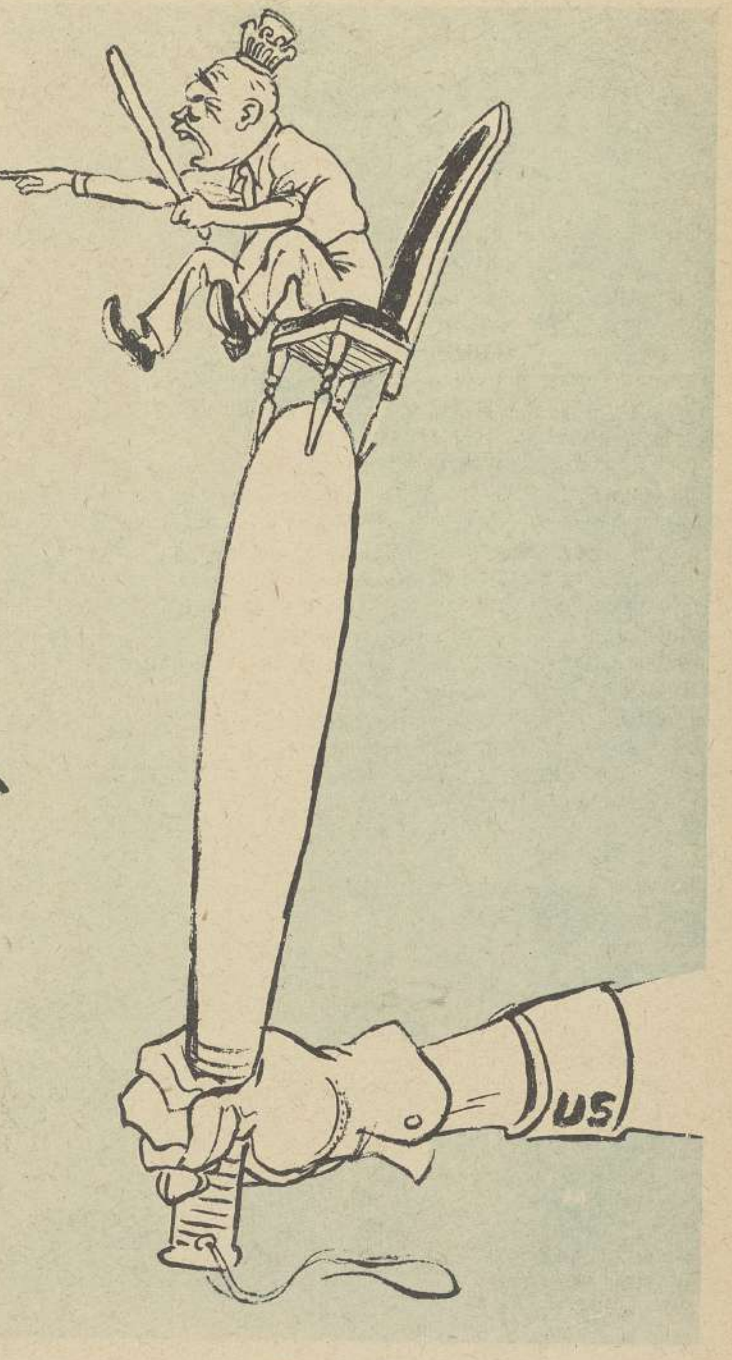
다짜 고짜로 날아드는 그의 매운 손'길에 대식은 쓰러졌다.

오늘날 미제의 대포밥으로 억울하게 끌려 간 청년이 어찌 정 대식 뿐이랴?

—우리 인민 정권 강화를 위해 모범일'군인 당신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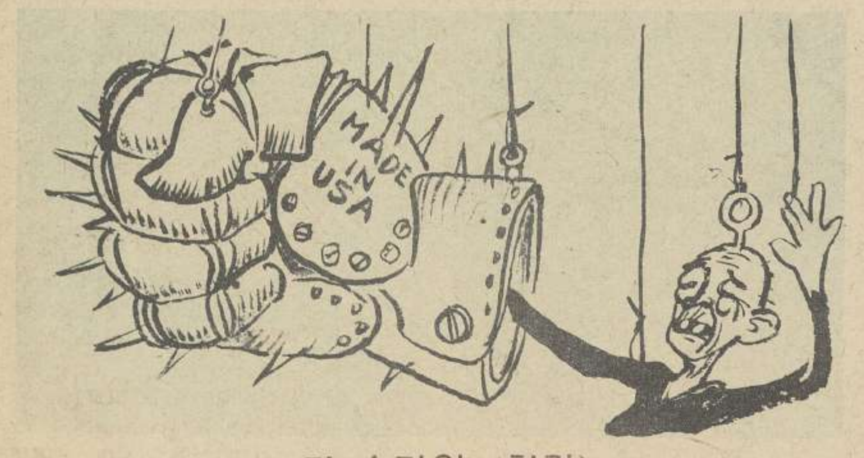
리 승만의 괴뢰 정치

리 승만의 정치 밑천



리 승만의 유일한 기둥

리 승만의 대통령 《자리》



리 승만의 《철권》

리 승만의 정치 연설

박 승히 그림

별 사고는 없었습니다!

유 · 항 림

뚜폰 재벌의 대주주인 마킨레는 울화로 인한 그의 병환이 얼마간 호전되여, 인제부터는 간단한 사무 정도는 보아도 무방하다는 말을 의사들로부터 듣자, 곧 월·스트리트의 자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브라운 비서를 불렀다. 얼마후에 비서가 나타났다.

《내가 앓아서 누워 있는 동안에 별 사고는 없었나?》

《안심하십쇼. 사고날만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나 국내 문제에서…혹은 가족들 중에서라도 말이네.》

《친척 중에는…토마스 소년이 락성을 했습니다. 조카 따님 되시는 마가레트·브랏드레 부인의 아드님 말입니다.》

《그애 어머니는 뭘하고 있었단 말이냐?》

《부인께서는 지금 영국에 가 계십니다.》

《영국엘?. 그럼 그의 남편 브랏드레 중위가 영국으로 전근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브랏드레 중위는 아직도 남조선 주둔 제8군에 계십니다. 부인께서는…말하자면…리혼을 한, 셈이지요.》

《뭐? 리혼? 그럼 이게 벌써 세번째 리혼이 아닌가! 게다가 브랏드레는 남조선에 가 있으니까 정식으론 리혼을 못했을테지? 말썽이 생기고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판이겠는 데 그러면 의례 내게로 달려와 울고 불고 할테지?! 마가레트는 언제나 경솔한 게 탈이야!》

《브랏드레 부인께서 경솔했다고만 할수도 없는 사정이 있었답니다. 브랏드레 중위가 조선 소년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쯤으로 리혼까지 할거야 있나?!》

《그렇지만 부인께서는 중위가 살인 범으로 조선 법정에 끌려 나가게 될거라고 판단해서…》

《뭐? 남조선 법정이 미국 군인을 재판한다구? 어림 없는 수작이지! 그래 어떻게 됐나?》

《안심하십쇼. 조선 인민은 전국적으로 떠들고 일어섰지만 한국 정부는 우리의 지시 대로 중위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마가레트가 경솔하다는 거지.》

《부인께서는 일본서 일어난 사건을 보셨기 때문에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인께서는 이번 상대자를 만나게 된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 백성들의 항의에 못이겨, 일본 녀성을 사살한 지라드를 일본 재판에 넘겨 주었거든요.》

《그래 엄자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구경만 했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재향군인 단체를 동원해서 반대 운동도 해 봤고, 몇몇 국회의원의 성명도 발표해 봤고, 련방 지방 법원으로 하여금 지라드를 일본 법정에 넘기지 말라는 결정도 내렸지만—》

《그리구두 넘겨준다는 건 웬말인가?》

《이런 문제가 일본서만 생겼다면 우리두 못 견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가 주둔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듣기 싫네. 그런 사소한 일두 처리하자 못한담! 미국 군대가 그 곳 주민 한둘쯤 살상하는 일이야 어제 오늘에 시작 됐다구?》

《그야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비률빈에 서도 대만에서도 희랍에서도 서부독일에서도, 그리구 영국에서까지 반미 운동이 극심해 지는 게 문젭니다. 조선에서 《미군 나가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나구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 같은 나라에서 조차, 미군이 타이 녀성을 릉욕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 계통의 신문들까지두 반미 운동에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뭐, 타이서? 수억만 딸라의 원조를 주었는데도, 정부 계통 신문까지 반미 운동에 나섰단 말이지?! 그런데도 본때를 뵈주지 못했단 말이냐?》

《예, 물론 본때를 뵈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만 사건 때문에…》

《뭐? 대만 사건이라니?》

《대만 주둔 우리 군사 재판정이 중국인을 살해한 미국 군인을 무죄 석방한 걸 계기로 대만 전토에 반미 운동이 일어났는 데, 대북에서는 시위 군중이 우리 대사관을 점령하고 책상들과 서류들을 부시고 대사관 꼭대기에 휘날리던 성조기를 끌어내려 찢고는 짓밟았습니다.》

《오호 하나님 맙소서, 대 아메리카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구나!》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이러구서야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냐! 우리 랭전 정책이 어떻게 된 단 말이냐! 아휴—군수 생산이 줄고 리윤이 줄고 주'권 시세가 떨어지겠구나! 아휴 가슴이야!》

《진정하십쇼. 흥분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브라운 비서는 그때야 비로소 의사들이 주의시키던 것이 생각나서 그를 진정시키기에 노력했다.

《레몬수를 올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쏘다수를?》

《쏘다수를 주게.》

쏘다수 한잔을 마신 억만장자 마킨레는 자기로서도 흥분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상기하고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약 삼십분 후에—— 죄송한 듯이 침상 옆에 쪼구리고 앉아 있는 브라운 비서를 돌아보며 마킨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가레트는 이번에도 리혼을 하려면 내게로 돈을 달라고 오겠지? 이번엔 또 얼마나 허비하게 되려는지?》

《안심하십쇼. 한 푼도 허비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브랏드레 부인의 이번 상대자는 영국 선박 회사 중역의 자제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영국 해운업이 얼마간 활기를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영국 해운업이 활기를 띠였다구? 어떻게 돼서?》

영국 선박들도 수에즈 운하를 다시 리용하게 된 후로는…》

《뭐? 영국이 수에즈 운하 문제에서 완전 패배 했다구? …가만, 가만 있게. 중근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는 내가 또 흥분하게 되겠네.》

《예, 저두 말하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다시 리용하게 됐다구 해서 그 조건만으로야 영국 해운업이 경기를 회복할 수는 없을텐데…》

《그야 물론이지요. 영국 정부가 중국과 북조선에 대한 수출 금지를 완화하고 통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도 영국 해운업은—》

《뭣이? 그렇다면 극동에서의 우리의 랭전 정책은 총파탄에 직면한 셈이군 그래, 응? 이런 사태에 이르도록 왜 내버려 두었느냐 말야? 멍텅구리들 같으니라구!》

《그점은 안심하십쇼. 파탄에 직면한 우리의 극동 정책에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전 협정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남조선에 신형 무기를 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옮겨 갔습니다.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때 국제 공약도 체면도 여론도 돌볼 바가 아니니까. …대만으로도 물론 신형무기를 가져갔겠지? 그러나 대만서는 반미 운동이 그렇게 극심하다니까 도리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군!》

《조선서도 반미 운동이야 대만보다 더 강렬한걸요, 뭐——》

《뭣이? 음, 아이구 가슴이야…》 마킨레는 그만 가슴을 치며 몸을 빗꼬았다. 끝내 흥분이 정도를 지나쳐서 의사들이 경계하던 징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급히 달려온 의사는 해당한 응급수당을 한 후에, 다시 3개월간은 절대 안정하며 신문도 읽지 말 것을 권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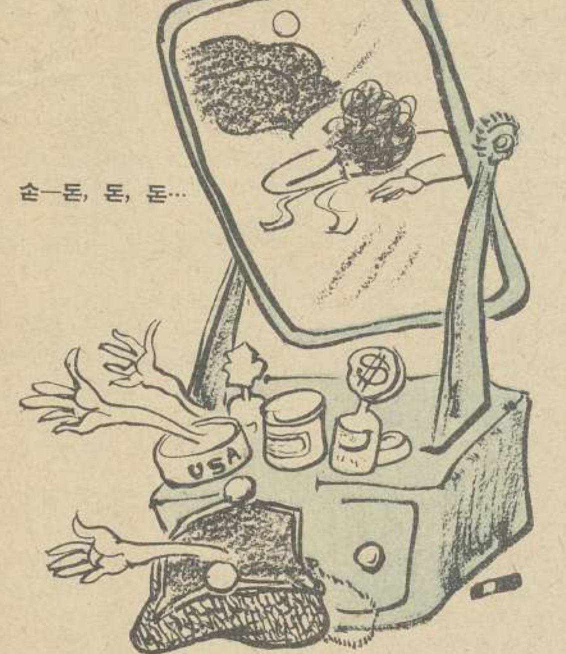
3개월 후에는 마킨레가 완쾌된다 하자. 그러나 그 때에 가서도 국제 정세는 마킨레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않으리란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리 승만의 소위"부흥"

백 인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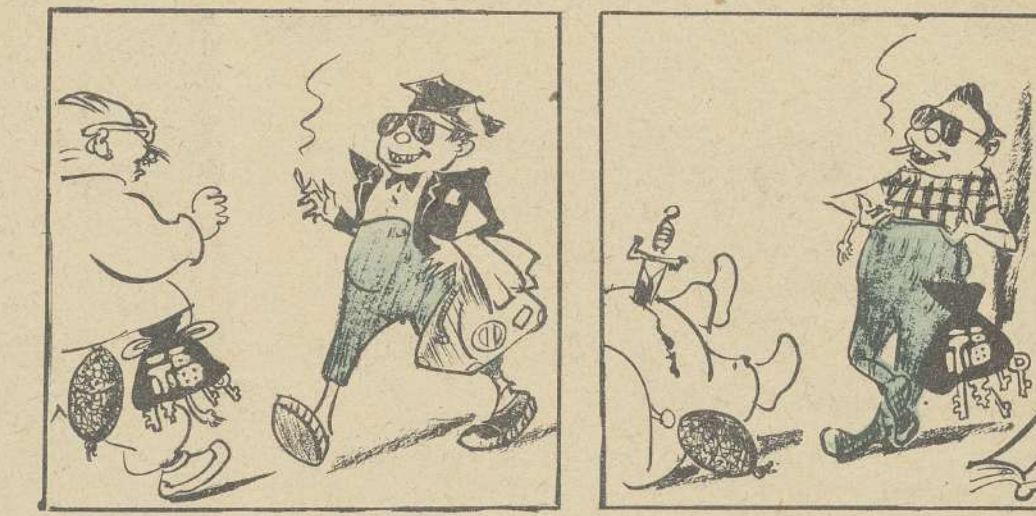
리 승만—이래도 《부흥》이 안된다고 그러는가…

미인 자살



손—돈, 돈, 돈…

미국 류학에서 돌아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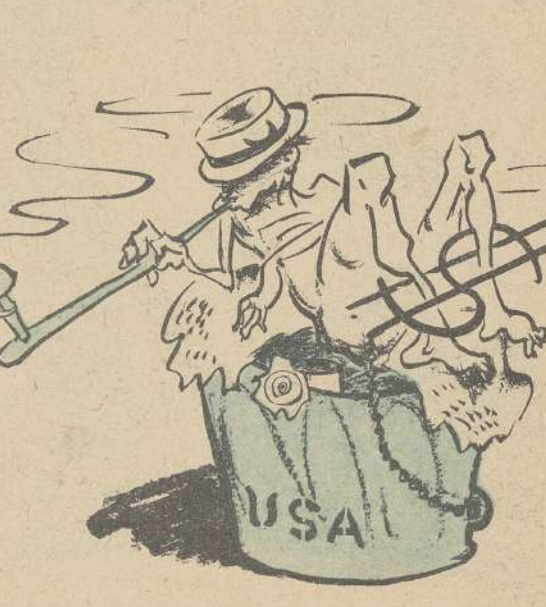
아버지의 기쁨은… 비극으로 끝났다

녀학생 살인 사건의 장본인은··?!

배부른 흥정

—얼. 얼. 얼마나 쳐드릴갑쇼··
—내야 알겠소, 총보고 물어 보시구려

수십만명으로 늘어가는 아편 중독자



백 인규 그림

미제는 물러가야 한다

—학교는 빼앗기고 —내 고향은 륜락의 거리로 되였다

조 명식 그림

야수적인 공상

한 자본가가 괴상한 꿈을 꾸었다. 그 내용은 로동자들이 이상 더 파업을 일으키지 않으며 임금 인상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순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시키는대로 일을 한다. 모든 이단자들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이 없다. 아름답고 훌륭한 현상 뿐…

잠에서 깨나자 자본가는 공상에 잠겼다. 꿈이 실현됐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그러한 물체를 고안해 낼 것을 학자들에게 명령해야겠다——

아마 이러한 《사회적 주문》이 실지로 수행된 모양이다.

미국 잡지 《싸이엔쓰 다이제스트》의 어느 한 호에는 《뇌 속에 넣은 라디오는 인간들을 로동에로 돌릴 수 있다》라는 눈부신 제목 밑에 《과학》론설이 게재 됐는바 : 《최근에 시카고에서 개최된 전자 에네루기에 관한 전국 대회에서 천한 바와 같이 인간의 뇌 속에 자리 잡은 극히 작은 라디오 수신기는 온전한 인간들을 리성을 잃은 농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현상을 《생의 통제》라고 부르는바 이는 온전한 인민을 농노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째서 그런가하면 인간들은 자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까닭이다.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생의 통제 분야에 대하여 잡지는 계속쓰고 있다. 대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명히 인간의 중추신경 계통에로 전자 신호를 끌어 넣 수 있는듯 싶다고› 그리하여 이는 인간의 동작 심지어 인간의 사고 과정과 정서적 반응까지도 좌우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말로써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다. 사실은 실험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집쥐의 공포를 일으키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그러나 집쥐의 이 정서는 바로 자본가를 격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갖 야생적인 공상까지 자아내게 하는 자본가 자신의 공포와는 물론 비교도 되지 않는다.

자기들의 억제할 수 없는 잠꼬대 속에서 《생의 통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며 또한 자기들이 연구해 낸 것이 정복 당한 인민을 말없이 맹종하며 일하는 동물의 무리로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잡지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승리한 민족은 인간의 두개골 밑에다 넣는 전기 장치물과 뇌의 일정한 부분에 도달할 전극으로써 난지 몇개월이 되지않는 애기들을 양육할 수 있다. 몇년이 지난 후 라디오 수신기는 아마 스위치에 끼워질 것이며 이때부터 생의 전기 신호를 리용하여 애기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이 잔혹한 계획들은 생 사람들에 대한 히틀러 도배들의 범죄적 실험들과 하등의 다름이 없다.

쏘련 문학 신문에서

피끌새가 어떻게 락타로 되였는가

칼미쓰 도싸노브

나의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퍽으나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해 주었는지
나는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는 거짓말이 버릇이된
거짓말쟁이에 대한 것이였다.

꾀끌새가 락타로 됐다고 할만큼
그는 거짓말하기에 미쳤다.

그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굉장하구나! 꾀끌새가 락타로 되다니!

그렇게 훌륭한 새에게 어떻게
꼴사나운 락타등이 생길 수 있으랴?…

나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의 사실은 어떤 옛 이야기
보다 못지 않으니…

우리한테 외국 기자가 방문하였다.
그는 얼마나 친절하고 말 《재간》이 있었던가!

그는 꾀끌새처럼 노래 불렀으며
여기 저기서 찬사를 올렸는데…
온갖 추잡한 것을 팔고 했으니
모든 사람에겐 락타처럼 보일밖에

어느 락타보다 조곰도 못지않다.
누런 침으로 모든 것을 오독하는 데는

그는 중상하는데 온갖 꽤를 다 부렸다.
이처럼 꾀끌새는 락타로 될 수 있다.

나는 알았다.
여기는 전혀 괴상한 것이 없다는 것을
꾀끌새에서 락타까지는 두발 걸음거리
밖에 않된다는것을.

우리는 많은 실례를 본다:
최근에 어느 국회에서
유명한 활동가가 이러한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완강하게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합시다!
전쟁의 불'길을 사족하는 것을 방임하지 맙시다!》

여러가지 목청으로
꾀끌새처럼 노래할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반시간 후에는 딴 목소리로 변했다.
식민지와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연단에서 꾀끌새처럼 노래 불렀으나
모든 사람은 잠시 후에 곱사등이 락타를 보았으니…

이것이 전부다. 륜리는 누구에게나 명백한것.
내가할 말은 다 했다,

그러나 나는 바라고 싶다: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그자들이
꾀끌새는 어디 살며
락타는 어디 사는자를 아는 것이
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응당 고려해야 한다고—

끄로꼬질 9호에서 (한 동신 번역)

금년에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휴양소로 간다

리 영춘 그림

미제에게 짓 밟힌 남조선 피서지

조 명식 그림

세계 도처에서 규탄 받는 미제의 만행

조선에서 · 대만에서 · 서부독일에서 · 불란서에서 · 일본에서 · 파키스탄에서 · 희랍에서 · 영국에서

홍 종호 그림

미제는 물러가라!

리 갑 기

위싱톤의 지도자들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의 태엽을 다시 더 죄기 위하여 일련의 불작란을 하고 있다. 란포하게도 조선 정전 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유엔군 사령부》를 도꾜로부터 서울로 옮겨온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지배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긴장 상태의 태엽을 죔으로써 스스로 진퇴 량난에 빠지는 추태만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 냈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일찌기 대만 해협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동원령 발표의 권한까지 아이젠하워가 부여받고 당장에라도 불질을 할것 같이 빼어든 칼이 그후 미국의 위신을 위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네바 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비키니도에서 폭발시킨 수소탄이 태평양의 애매한 물'고기들을 못살게 한것과 《복룡환》의 일본 어부들을 도살한 것과 함께 미국을 위하여 어떠한 소득을 가져 갔으며, 작년 수에즈에서 영, 불에게 포악한 만행을 사촉한 결과 위싱톤은 어찌하여 그들의 패배와 이든의 비참한 말로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영 불군에게 철퇴를《권고》함으로써 가슴에 칼을 품은 《평화의 수호신》과 같은 어색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덜레스의 양병과 입원 전술로서 겨우 그 자리를 모면치 않으면 안되였던가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덜레스의 《뉴룩》 정책 즉 《힘》의 립장에서 나사못을 죔으로써 그들이 오늘까지 거둔 영예롭지 못한 기록이 아니였던가!

하기야 오늘이라도 긴장 상태의 태엽이 늘어지고 《비 52》와 수소무기 유도무기 등으로 사람들을 위협함이 없이는 당장에 합중국에 대한 추종 국가와 그 지배자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으며, 데트로이드와 피츠파크의 팽창한 군수 생산이 즉석에 문을 닫아 걸어야만 할 것이며 아메리카적 생활양식의 강요도 불가능 하게 될 고민이 없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아름다운 시대에 살게 될 전 인류와 세계의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손으로 원자무기와 유도무기를 겨누고 있는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아이젠하워는 한번 거울에 비처 볼 필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선에 있어서 미국 지도자의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무기의 반입이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애급에서와 웽그리야에서와 인도네시아에서와 마찬가지의 패배의 기록을 다시 하나 더 첨가하는 것 밖에 다른 소득은 없을 것이다.

미제의 낡은 번견과 한줌도 못되는 그 일당을 제하고는, 벌써 미국 지배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스스로 값싼 소모품이 될 것을 원하는 조선 사람은 없으며, 더우기 조선 땅의 일단이 유도무기의 기지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미국 지배자들은 그들의 가장 신임하는 인간이라고 선발하여 해측 탑사 훈련을 시킨 《한국》에서 몇 사람 안되는 청년이 왜 귀국 도중 도꾜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을 지망하여 망명권을 요청했으며, 또한 그들이 원자무기와 유도탄의 훈련을 시킨 이 역시 《국군》 내에서 몇 사람 안되는 현역 장교가 행방 불명이 되였으며, 왜 미국 통신들은 계속하여 월북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지극히 《불쾌》한 사실을 계속보도하여야 하며, 왜 남조선 청년들의 징병 기피가 대중적인 경향으로 되였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지? 이것은 비단 조선 뿐만이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가 벌써 《반둥 정신》의 시대란 것을 허심하게 검토해 볼 것과 펜타곤의 유일한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는 소위 심리작전의 전문가는 랭정히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동 나무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된 것을 안다는 동양 속담이 있다. 미국의 허망한 꿈이 깨여져 나가는 가을을 알리는 추풍낙엽의 징조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 위싱톤의 정객들은 《힘》의 정책이나 핵무기 유도탄에 대한 미신이 조선에서도 역시 중대한 오산을 가져 오리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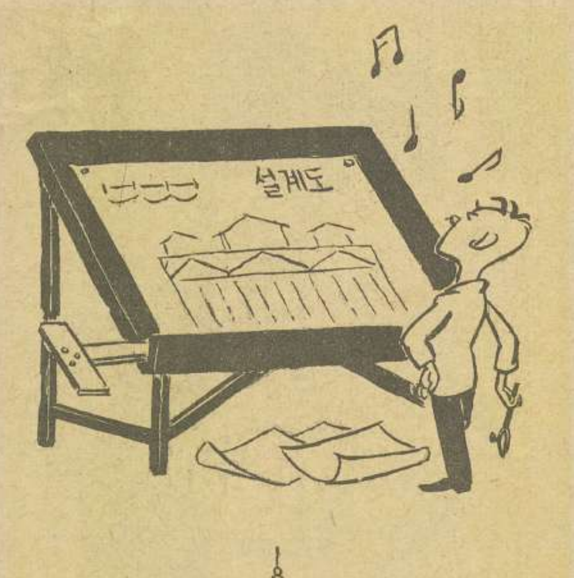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은 조선사람의 것이다. 조선 인민은 그들의 어떠한 도발이나 준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추악한 시도를 가진 저들의 흉기를 걷어 쥐고 하루 바삐 물아감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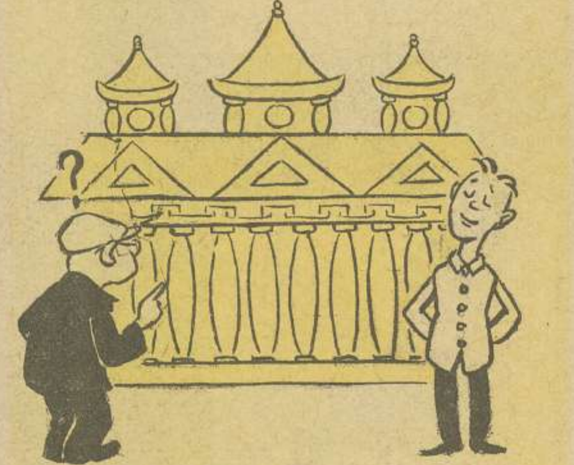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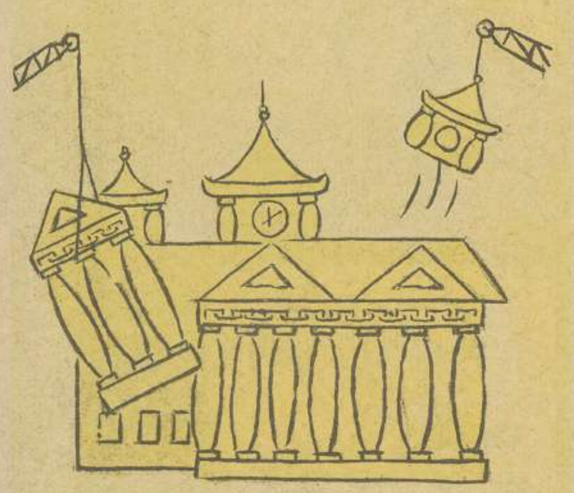
미국의 심장 뉴욕

하나에서 찾아번 셋



—이 건물을 자네가 설계 했나?





—이편이 쓸모 있고 좋지 않은가…

탐조등

희안한 고안

○○ 공사의 중간 검사 신청서를 읽은 수풍 건설 트레스트 검사 부장은 저으기 놀래여 신청서를 제출한 소장을 불렀다.

《소장 동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사 준공이 아직 멀었는데 완공했다구 검사 신청서부터 제출했으니…》

《우리두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고안을 했습니다.》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안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때에 검사를 해 주지 않구 깔아 두었다가는 10～20건씩 한꺼번에 검사해서 검열 악트를 발급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라면 보통 1～2개월씩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쯤 완공했다구 검사 신청서를 내야 공사가 끝날 무렵에 검사 승인이 나와서 지체 없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고안해 낸 사람은 참 표창할만 하지요?》

그 정력과 그 노력을 가지고

《에이 제발 이놈의 파리 없었으면…》

일요일이라 오늘은 영화를 구경하고 와서 집으로 돌아 온 영팔은 문 열고 들어 서자 와그그 달려 붙는 파리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그는 한잠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러나 파리들이 얼굴에 자꾸만 달라 붙어서 잘 수가 없었다. 그래 연신 파리를 쫓으면서 좀 자보려고 했으나 그냥 시끄럽게 달라붙어 영팔은 그만 신경질이 나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 제끼고 이불'보를 휘둘러 파리들을 밖으로 내 몰았다. 그리고 나서 좀 자려고 했지만 파리들은 여전히 아까나 다름 없이 달라붙어 못자게 굴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밖에 쫓겨 나가 있던 파리들이 이제는 들어 오라는가부다 하고 도로 다 들어 온 것이다.

그래 이번에도 파리를 쫓으며 자려다 못해 끝내 자지 못한 그는 부화가 나서 악을 쓰며 다시 파리들을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랬지만 그는 파리들의 성화에 끝내 한잠도 자지 못하고 말았다.

사실 그 정력과 그 노력을 가지고 파리를 잡았다면 아마 편안히 잘 수 있었을 것을!

운전수와 아스팔트

한 자동차 운전수가 시 도시 시설 관리소에 있는 친구를 만났다.

《여보게 아스팔트 파괴된 곳들을 빨리 좀 보수해 주게. 그 때문에 자동차와 다이야 수명 보장에 큰 지장이 있네.》

그러자 도시 시설 관리소에 있는 동무가 말했다.

《그러지 않아두 우리가 동무네게 부탁하려고 했네. 저것 보게, 동무네가 저렇게 밋쏭과 기계들에서 기름을 흘리면서 다니기 때문에 아스팔트 수명 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네. 아스팔트는 기름이 떨어지면 용해되는데 그우를 자동차와 우마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괴되군 하네. 자동차들이 기름을 안흘리면 차의 기름을 절약하니 좋구 핏취를 절약하니 좋구 파괴된 곳을 보수하노라구 군 노력을 랑비하지 않으니 좋구, 자동차와 다이야 수명 보장에도 좋구, 그리구 우리들이 뻐스를 타고 다닐 때도 편안하니 좋구, 그야말로 꿩먹구 알먹구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건설장에서

평양 제 1 건설 트레스트 제 3 사업소 공사 현장에서는 로동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고성능 기계들인 엑스가바똘, 부루도젤, 마즈 화물차들은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다.

그 기계들은 평양지구 건설 기계 임대소의 것인데 이 트레스트의 요청에 의하여 지금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사업소 기사장이나 현장 지도원들이 작업 조직과 지도를 잘 해 주지 않아 기계 운전수들은 작업 순서와 방향을 알지 못해 기계들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운전수들은 그냥 기계들을 놀릴 수 없어 아무 일이나 하자고 하며 작업을 하는데 기사장이 나와 소리를 쳤다.

《여기 이 흙부터 파내야겠는데 거기 흙부터 치우고 있으면 어떻거우? 그리구 하수도 공사할 망호루까지 메꿔 놓았으니…》

한 운전수가 말했다.

《기사장 동무 우리 보구 일을 잘못한다구 하지 말구 작업 지시를 제때에 해 주시우, 작업 순서를 몰라 어태 있다가 그냥 기계를 쉬우기만 할 수 없어 아무거나 하노라는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기사장이 하는 말이,

《8 백명의 로동자들에게 지도원이 셋이서 어떻게 일일이 만나 지시를 주겠소? 동무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일해야지》

사실 이 말에서 기사장이 현장 지도원을 그저 〃지도원〃이라고만 한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기사장이나 현장 지도원을 보는 날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라고 말들 하고 있는 로동자들에게 사무실에 들어 박혀 있는 지도원을 현장 지도원이라고 부르기기 거북했기 때문이였다.

리 운 봉

속담에만 그쳤으면

상 민

뒤'동산만한 로적가리
구백 아흔 아홉섬 벼를 쌓 올리고、
부자놈은 오히려 불만이 컸다
—천섬을 천섬을 채워야만 할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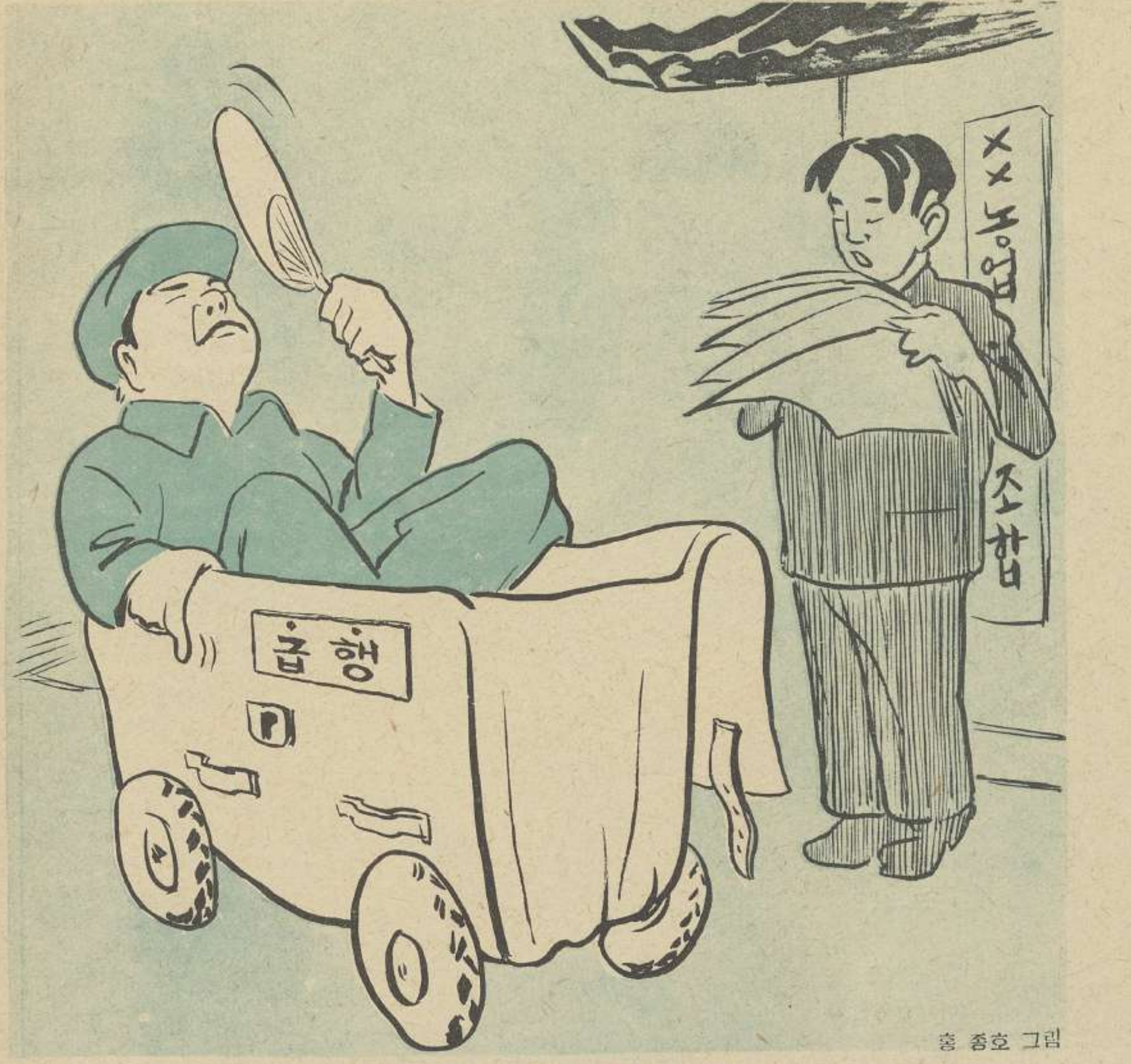
집떨이 한섬을 봉당에 딩굴리며
가난뱅인 한 집안 눈앞에 아득한데
아득한 눈앞에 부자놈이 나타났다.
—그 벼 한섬을 내게루 몰리게

속담에만 그쳤으면 웃을 수도 있는 일
속담만이 아니라서 우리는 분노한다
미제 리 승만은 남조선 절량 농가에
마지막 한톨 씨앗 마저 앗어간다.

속담에만 그쳤으면 웃을 수도 있는 일
속담만이 아니라서 우리는 부르짖는다
한줌에 흙인들 놈들에게 짓밟히랴
미제는 물러가라! 미제는!

(최 영근 그림)

낯을 익힐 사이도 없는 지도



홍 종호 그림

—푸로 수만 말하시요…다음 조합에 가야겠으니까…

다시 돌아온 행정 경리 과장

김 호

하루 일을 검토 총화하고 있던 행정 경리 과장 조 윤원 동무는 마주 앉은 지도원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홍 동무 저 돼지먹이 겨 (미강) 문제는 해결 가능합디까? ——

홍 동무는 잠시 동안 묵묵히 머리만 긁적거리다가 민망하다는 듯이 낮으막한 어조로 대답했다.

—수매 량정부와 국영 정미소에 가서 아무리 교섭을 해도 도 인민 위원회 수매 량정처의 출고 지도서가 없이는 한 구람의 미강도 낼 수 없다고 들 강경히 거절합니다. ——

—안될 일이야 하는 수 없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조 윤원 동무는 또다시 시끄러운 잔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노이지 않았다.

바로 이때 전화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조 윤원 동무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시요. 행정 경리 과장이요. ——

하고 수화기에서 쨍쨍하게 울려 나오는 말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걸어 오는 그 녀성의 음성임에 틀림 없었다.

—또 뭐야 무연탄인가, 돼지 겨 문제인가, 손님이 오셨단 말인가? 시끄러워서 도모지 원……하고 수화기를 든 채 중얼 거리다가 조 윤원 동무는 마지 못해 전화통에다 입을 댔다. 돼지먹이 겨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채 끝나기 전에 전선을 타고 그악스러운 소리가 쨍쨍하게 울려왔다.

—여보 내가 돼지 겨를 구해 달라고 말한지 며칠째되오 군 위원회 행정 경리 과장 자리에 앉아서 돼지 겨 몇 가마니도 못구한단 말이요? 우리집 돼지는 굶어 죽게 됐소 굶어 죽게 됐단 말이요. 동무, 그래 군 위원장 댁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먹고 그러는 거요, 전번에도 군 위원회 사무실용 무연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더니만. ——

터무니 없는 소리를 듣고 있던 조 윤원 동무는—이제는더 참을 수 없다. ……오늘은 단단히 버릇을 떼 놓으리라고 속다짐을 하면서 말했다.

—여보시요, 군 위원장네 아주머니, 나는 군 인민 위원회 행정 경리 과장이지 군 위원장 댁 경리 과장은 아닙니다. ——

그의 음성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힘 있었다.

—뭐요, 어디 두고 봅시다. ——

상대편에서 수화기를 탁 놓는 바람에 조 윤원 동무도 말을 더 계속하지 못하고 코웃음을 하면서 수화기를 놓았다.

다음 날 아침이였다. 출근과 동시에 조 윤원 동무는 군 인민 위원장실로 호출되였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은즉 위원장 동무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 녀편네가 이제 또 다시야……——

그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층층대를 걸어 올라갔다.

그러나 천만 뜻 밖에도 청천 벽력이 내렸다. 조 윤원 동무가 문안에 들어서자 군 인민 위원장 하 풍규 동무는 노기 등등하여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입을 열었다.

—동무! 왜 그 모양으로 무능하오, 오늘 부터 다른데 가서 일 자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여 조 윤원 동무는 군 인민 위원회 행정 경리 과장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하에서 또한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 각성 밑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오래지 않아 군 위원장 하 풍규 동무의 그릇된 사업 작풍은 비판 시정되였고 조 윤원 동무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증세와 진단

—랭상모는 끌치가 아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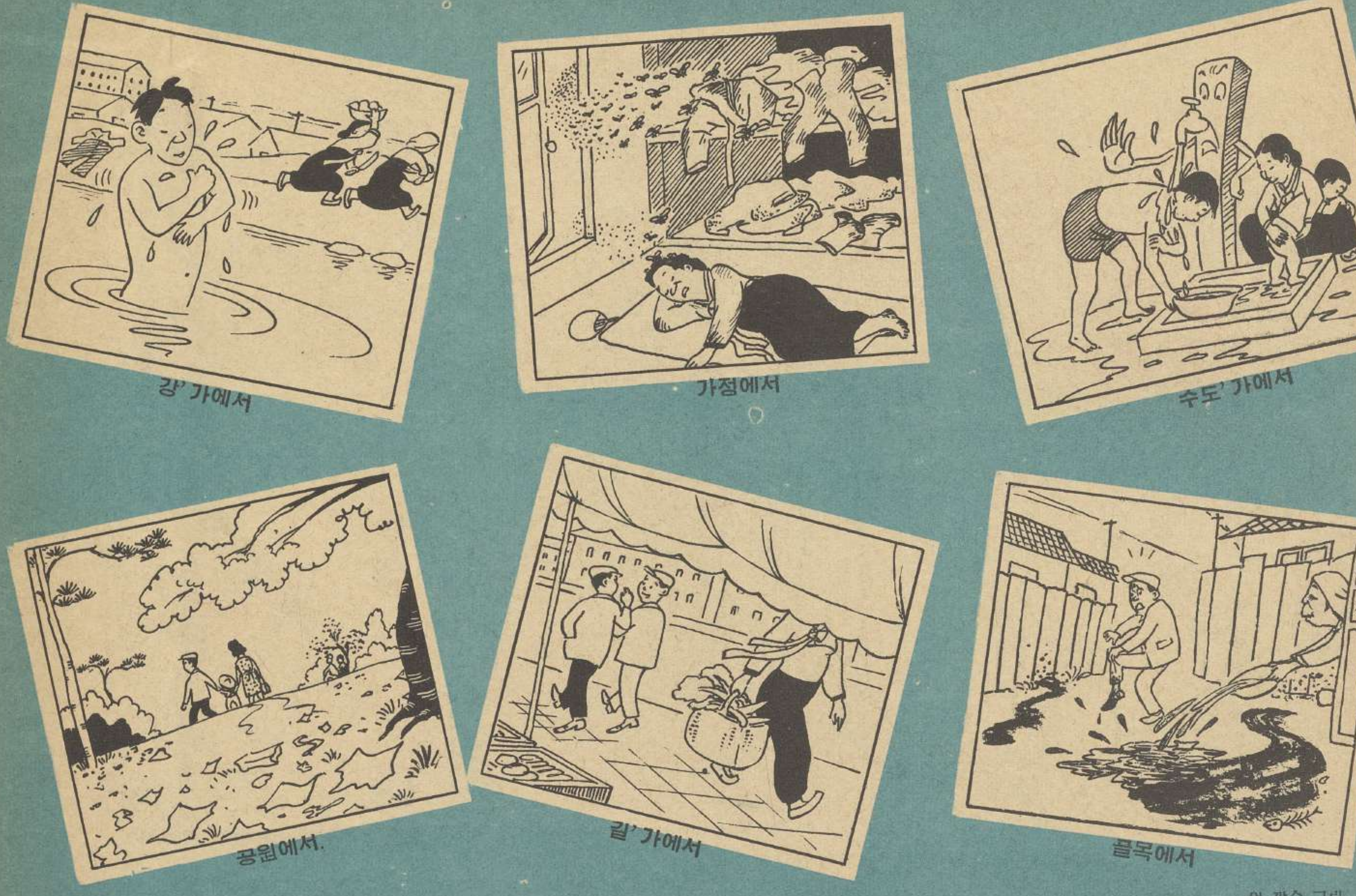
—시비는 냄새가 역해서…

—모내기는 허리가 아파서…

의사—당신의 탈은 로동을 해야 낳겠소

원 광수 그림

여름 철의 끌불견 몇가지



원 광수 그림

록음실

웬 일일까?

백화점 신발부, 신발상점, 협동 조합 상점 벽 진렬대에는 자리가 좁다는 듯이 구석구석에 빼곡 들어찬 것이 그게 전부 고무신이다. 흰 고무신, 옥색 고무신, 까만 고무신, 남자, 녀자 고무신 어쨌든 많고 흔한 것이 고무신이다. ─ 저렇게 많은 고무신을 누가 다 사 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웬 일일까? 저렇게 신발이 많은데 어린애들의 신은 왜 없을까?

원래 애들의 옷은 작고도 손이 많이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신발도 그런 격으로 손이 많이 가고 프로수는 오르지 않아서 안 만든지는 몰라도 어쨌든 발걸음을 타는 애들로부터 대'살자리 애들의 신은 없다. 6·1 절 특설 매매에도 역시 신발은 없었다.

─ 엄마 내 신은 왜 없나? 큰 신은 많은데 응?

─ 이제 만든대……

─ 이제?

몇 개의 국영 신발 상점에서도 제발에 맞는 신을 살 수 없어 그저 집으로 돌아 오던 기진이는 속이 좋지 않아 졸라댔다.

다른 일 같으면 혹시 몰라서든지 잊어서 못할 수도 있다 치고 계획 일 군들이나 고무신 공장 지배인 동무네도 어린애가 있을 터이니 모르지도 잊지도 않았을 터인데 ── 웬 일일까?

《산》과 《못》

농기계 임경소 뜨락또르 운전사 리 수원 동무는 "못"으로 굴어 떨어지는 뜨락또르 우에서 뛰여 내리노라고 몸 부림을 치다가 깜짝 놀라서 잠이 깨였다.

꿈이였기에 천만 다행이였지── 꿈도 참 이상한데… 혼자 중얼거리고 나서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일 하던 논으로 달려갔다.

아직 채 밝지도 않았는데 논에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린다. 어둠 속에 살펴보니 요사이 제가 되는 대로 갈아 엎어서 생긴 "산"을 헤치고 "못"을 메꾸노라고 법석이다.

× ×

.함남 정평 농기계 임경소에서는 신상군 화동리, 인흥군 동흥리 일대의 논, 밭을 가는데 어떤 곳에는 흙을 "산"같이 쌓아 놓고 어떤 곳에는"못"을 파 놓고 그나마도 어떤 논은 드문 드문 뛰여 넘어서 갈기도 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말한다. 기계가 사람의 덕을 보려는지──어쨌든 숱한 로력을 랑비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아 직 도…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가 열렸었다. 송림지구 로동자들은 송림시 백화점, 식료품 상점들에서도 새로운 개진이 있으리라고 많은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회의가 있은지 석달이 지나고 넉달이 지나도록 이곳 백화점은 구태 의연하다.

로동자들이 출근하면 백화점이나 식료품 상점에서도 출근하고 로동자들이 퇴근하면 백화점이나 식료품 상점에서도 퇴근한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데다가 판매원은 자리를 비는 때가 많다. 그래서 요행히 맛다들려서 물건을 사려면 판매원이 없어서 또 못 팔겠단다.

판매원은 어디 갔느냐구요? 《회의에 갔소》《결근 했소》《점심 먹으러 갔소》아무렐 가도 상관은 없으니 물건을 팔아야지── 수 많은 고객들이 되 돌아간다. 그런즉 로동자들은 담배 한갑도 마음대로 살수 없어서 장'거리에서 돈을 더 주고 사야만 하는 때조차 있다.

이렇게 되니 새로 오는 물건들은 아무때나 품 놓고 부지런히 사려다니는 사람의 손에 들어 가기 마련이다.

로동자들이 퇴근 후에 백화점에 들려서 좀 사자면 시간이 됐으니 래일 오라고 몰아낸다.

다른 곳들에서는 이동판매, 배달 판매까지 하며 고객들을 찾아 다니는 이때에─ 아이구 사기 힘든 송림시 백화점이야…… 라고.

그러다 보니 이곳 지배인 동무는 열성자 회의는 참가했건만 아마 열성자는 못되는 셈이야……

현지 지도는 이렇게

책상 머리를 떠나 현지에 나가서 산 지도를 해야지·더군다나 때가 어느 때라고── 이것은 상부 지시를 받들고 강원도 세포군 인민 위원회에서 내 세운 지도 사업 방향이였다.

그러니 마침 모내기가 한창인 때 농업부 부부장 리용문 동무는 서하리를 지도하러 나왔다.

서하리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온 마을이 모내기에 나섰다.

해가 높아서야 리 인민 위원회로 나오신 부부장 동지 ─ 리 간부들은 다 어디로 갔나? 낮에는 사람을 만나야 지도를 하지……

그래서 농민들이 논에서 돌아온 후에 지도를 하기로 작정한 부부장 동지는 길고 긴 날을 어떻게 보내랴 ─ 생각 끝에 묘안이 나왔다. 낚시질을 가자… 이렇게 되여 부부장 동지는 시원한 강'가에서 고기들을 지도하면서 하루 해를 보내고 저녁 때가 돼서야 돌아왔다.

× ×

급작 지시로 방금 논 밭에서 돌아온 농민들이 모이게 되었다.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라

박 승히 그림

부부장 동지는 영농 사업에 대한 일장의 연설을 하였다. ── 적기 이앙이요, 소주밀식이요, 하면서── 그런데 농민들은 피곤한 나머지 꺼덕 꺼덕 졸고만 있었다.

─조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몸씨들 피곤하신 모양이니 오늘은 이만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은 사업 조직을 정확히 세밀하게 해서 알곡 증산 계획을 초과하라고 신신 부탁을 하는 것으로서 부부장 동지의 현지 지도의 하루는 끝났다.

낮에는 고기 지도에 밤에는 모내기 지도에── 피곤하신 부부장 동지의 현지 지도는 얼마나한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

누구를 위한 선심

비가 오지 않은 곳에서는 농민들은 가물을 이겨내자고 오늘도 우물을 파며 인수로를 파고 강물을 끌어 올린다. 동이로 물을 길어 나른다. 어데서나 참을성 있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한 동이의 물도 귀한 때다.

그런데 황남 배천 농기계 임경소 일'군들은 도태리 례성강 지류에 있는 늪에 뜨락또르 2대와 양수기 1대를 들여대고 이를 동안이나 숱한 품을 드려서 늪의 물을 퍼내고 고기 잡이를 했다.

이틀 동안에 소비된 로력과 설비의 소모는 고사하고 퍼낸 물을 대강 계산해도 6,000 여평의 천수답에 모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임경소 소장 동지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거꾸루 한 셈이 아닐까?

그런데 뻔한 일을 거꾸로 한 이 임경소 일'군들이 가물에 환장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위한 선심이였을까?

누가 알아야 하나

함북도 수매품 도매 사업소에서 보낸 계란이 평양에 도착되였다 검수 립회에 참가한 박 동무는 뜻밖의 일에 부닥쳤다. 도착된 계란 45,275알 가운데 골라내고 보니 2,250알이 깨졌었다.

다음 번에는 28,3000알 가운데 1,144알이 또 깨졌다. 상품의 질량의 보존은 포장에 달렸다는 것 쯤은 상업 일'군 아닌 아무나가 다 아는 일이건만 일부 수매 일'군들은 남의 일처럼 머리를 안쓰는 까닭에 아무렇게나 꾸려서 부쳐만 놓으면 일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데로부터 때로는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한다.

계란 한가지를 부쳐 오는 데도 각 가지로 꾸려 온다 포장 재료도 벼'짚에도 꾸리고 벼'겨를 쓰기도 하고 한 상자에 350알이 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500알 까지 들어 있기도 하고 벼'짚으로는 다섯개씩 꾸린것도 있고 열개씩 꾸린 것도 있다. 작은 일 같으면서도 큰 일은 조금만 연구하면 안전한 포장으로서 규격화될 수도 있는 일이건만── 수매 일'군들은 부쳐 놓으면 고만이요, 받는 사람은 받을 때부터이요 하면 중간의 손실을 누가 알아야 하나. ──

김 상 애

편집 위원 장 진광,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흥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7. 10 7 40549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7. 15 값(50원)

8034 ХВАЛЬСАЛЬ

8 ПЗН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
22 1.12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인민의 반대

박 승히 그림